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잊혀진 '경계의 화가들'

어느 쓸쓸한 그림이야기
안민영 지음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어느 날, 한 40대 화가가 붓을 잡고 아내와 어린 남매를 모델로 그림을 그린다. 그림속 흰 저고리와 푸른 치마 차림을 한 아내는 굳혀 잠든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고, 딸은 탁자에 턱을 받친 채 생각에 잠겨있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시작된 작품 '가족'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았다. 화가가 같은 해 9월에 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화가 임군홍(1912-1979)의 이야기다. 아들은 "나에게 '화가 임군홍'은 있지만, '아버지 임군홍'은 그때부터 없었다"고 말한다. 화가 가족은 경제적·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작품들을 오롯이 지켰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예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정전 70주년 기념전 '화가 임군홍:근대를 비추다' 전(9월 26일)에서 아버지의 미완성 작품 '가족'을 설명하고 있는 아들 임덕진 씨. /연합뉴스

'역사교육'에 연재했던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저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흔적을 찾아 발품을 들였다.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 리청과 의회도서관 등지를 직접 방문하고, 일본 경매 사이트와 중국 중고책 사이트를 뒤적이고, 화가 가족을 만나며 '읽혀지기를, 들려지기를, 보여지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술작품과 일기, 편지 등 많은 자료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이혜대의 '3·1봉기'(1959년 작)와 박경란의 '딸'(1957년 작)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또한 독자들은 화가 이혜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보낸 편지, '동백뱀 사건'으로 투옥된 고암 이용로가 '가장 춥고 괴롭던 날'에 그린 수묵작품 '지화상'(1968년 작) 등을 통해 이념의 굴레에 갇힌 '경계의 화가'들의 인간적 면모와 함께 작가적 고뇌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남과 북 어느 역사에도 기록되지 못한' 화가 변월룡은 우리 역사의 디아스포라를 상징한다. 신순남(신니콜라이)의 '진혼제, 이별의 촛불, 붉은 무덤' 연작은 1937년 연해주에서 64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해야했던 '몸으로 겪어낸 한국사의 생체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독립운동가(박창빈)의 딸인 화가 박경란은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평양미술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뒷날 북한 미술계는 '평범한 가정 주부로 전락한 유학생 여성'이라는 저평가를 내렸다. 저자는 박경란의 작품 '딸'을 설명하며 "누군가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용노의 '군상'과 도미야마 다에코의 '광주의 피에타' 이야기가 독자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도미야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뉴스로 본 후 '죄어드는 심정을 가리얏기 위해' 판화 연작인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를 제작했다고 한다. 식민과 해방, 분단, 독재, 디아스포라를 겪은 '경계의 화가'들의 삶의 궤적은 그대로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이제 는 포용해야 할 때다. <빨간소금·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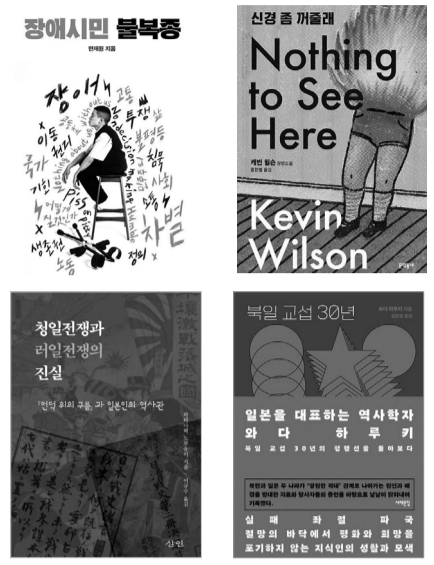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장애시인 불복종=사회운동가이자 인권투쟁가로 활동해 온 저자가 장애시인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소수자 정책 연구자, 전장연 정책국장 등 이력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력은 장애 시인들의 불복종 이유를 궁금하게 만든다. 노동자들을 쓰러뜨리는 산업재해, 코로나에 쓰러져 갔던 장애인들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또 '지하철 탑승권 투쟁'(전장연 시위) 당시 궁지에 내몰린 장애인들의 처지를 피력했다. <창비·1만8000원>

▲신경 증개조=아라바이트를 전전하던 릴리언, 어느 날 동창 매디슨에게서 아아이를 돌봐달라는 편지를 받는다. 그의 남편이 국무장관 후보로 내정됐고 무시한 장관이 될 때까지 말아달라는 것. 두 아이는 흥분하면 피부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독특한 체질을 지녔다는 점이다. 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고행 그 자체다. 그럼에도 완벽하지 못했던 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차가운 개인주의를 리얼리즘에 가깝게 반영했다. <문학동네·1만6000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진실=19세기 내외에는 패권 경쟁에서 실각하는 것이 국운의 몰락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던 일본은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을 거치며 군국주의의 분위기를 가중시켰다. 저널리스트



인 일본인 저자는 낸 '일러전사'의 허구성과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 러일전쟁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한다. <삼인·1만8000원>

▲북일 교섭 30년=1945년 연합군에 항복한 일본은 50여 년 전쟁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여러 나라들과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북한과는 수교하려 들지 않았다.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 국교 수립에 대해 목소리가 일었다.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의 활동이 올해 말에 끝나는 시점에서 저자는 양국의 국교 촉진을 위한 고두보가 한국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해문집·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파브르 곤충기7='송장벌레'(딱정벌레) 싹싹이는 곤봉 모양의 특이한 더듬이를 지녔는데,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다. 두더지를 청소하던 어느 날 우연히 사랑하는 싹싹이를 만나 결혼까지 한다. 둘에게 두더지의 몸은 어느새 아기를 낳는 소중한 집이자 식량이 돼 어린이들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열림원어린이·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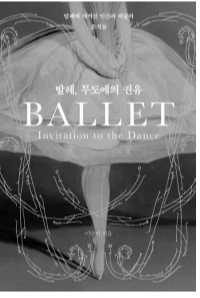
▲본격 한중일 세계사=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인 낭인들이 경복궁에 들어닥치고 조선의 국모는 최후를 맞았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아관파천)하기 이른다. 1897년 2월 다시 환궁한 고종은 왕을 황제로 부르자는 칭제건

원을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대한제국은 다시 태어난다.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 열강들의 격동의 사파전 속에서 조선이 근대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위즈덤하우스·1만5800원>

▲왕의 과거=프랑스의 전통 과자 '갈레트 데 루아'는 왕의 과거라는 별칭을 지녔다. 갈레트를 나눠 먹으며 그 안에 들어있는 '페브'(도자기 장식품)를 뽑은 사람은 1년 동안의 행복을 약속받는다. 시무룩해 있던 한 아이가 도자기 인형을 뽑길 바라며 펼쳐지는 달콤하고 버터 향 가득한 이야기. 갈레트 속에 숨어 있는 '필라'를 찾아내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서사가 담겨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6000원>

몸의 한계 넘어서는 32바퀴 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발레, 무도예의 권유
이단비 지음



아마도 '발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여성 무용수가 '발끝으로 서 있는 모습'일 것이다.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오필이 발끝에 의지해 32바퀴 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감탄이 터져나온다. '지젤'의 요정 율리들이 추는 일사불란한 군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공중으로 뛰어오르면 언제 지상에 착지할지 알 수 없었다"는 바츨라프 니진스키의 '전설같은'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흥미는 배가된다. 여기에 작품 내내 차이콥스키, 아당, 쇼팽, 민쿠스 등 대가들의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니 황홀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발레, 무도예의 권유-발레에 새겨진 인간과 예술의

흔적'들은 무용수의 신체부터 발레 동작, 발레 용어, 발레의 역사, 주요 작품과 아티스트까지 발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발레와 춤에 관한 글들을 기고해 온 저자 이단비는 오랜 기간 발레를 배우고 춤을 추는 발레 애호가다. 그래서 책을 읽다보면 발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무용수, 안무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1장 '발레의 신전, 몸'에서는 발레 무용수의 몸과 발레의 핵심이 되는 동작, 이를 잘 해내기 위한 신체 조건과 요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손끝부터 발끝까지 발레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선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예술을 완성하는 무용수들의 노력도 소개한다.

발레는 '고관절을 열어 튼이웃을 하고, 발등을 밀고, 발끝으로 서고, 내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훈련과 이후에 묘기에 가까운 테크닉을 섭렵하는 과정'이기에 그 길은 지난하다.

2장 '몸에 새긴 춤, 춤에 새긴 기록'에서는 발레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발전하게 되었는지, 복장과 춤의 형

식은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등을 들려주고 공연 전에 막 뒤에서 벌어지는 준비과정을 공개한다. 남자 무용수가 타이즈만 신고 춤을 추게 된 사연, '튀튀'의 등장으로 남성무용수 중심이었던 발레에서 여성이 부각된 이야기 등이 흥미롭다. "어떤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선다는 것은 작품의 철학을 읽는 것이고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읽는 행위"라는 말도 인상적이다.

3장 '발레는 어디로 향하는가'는 사조를 따라 발레사의 흐름을 짚으면서 지금 뜨겁게 관심 받는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시력을 잃었지만 조명과 상대 무용수의 움직임과 속삭이는 소리에 의지해 춤을 춘 쿠바의 알리시아 알론소, 70세에 춘 '빈사의 백조'로 영원히 기억되는 불쇼이 발레단의 마야 플리세츠키야,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에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발레리노 조르주 뒤편 등을 만날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박현지 작가의 다양한 일러스트도 인상적이다. <클·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